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일(28일) 오후에 모입니다.
- 어린이학교 졸업여행(태국, 홍콩)은 26일(금)에 귀국합니다.
- 멋쟁이학교 봄학기 수업을 21일(일)-2월7일(수) 진행합니다.
- 어린이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8일(일)-29일(월)에 있습니다.
- 정태일목사님은 다른 교회 설교와 강의를 위해 출타하셨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제 41 - 3 호

2024년 1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2024년 = 365 + 1’ 혹은 ‘그 나물에 그 밥’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듯 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농사짓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기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보다는 차가 미끄러질까, 걸어다니면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먼저 합니다.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하루가 더 주어진 해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가 더 생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더 생겨서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더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하루를 일로 채워야하는 사람에게는 불만이 생기겠지요.

새해가 된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떠오르는 하루의 연속, 어제와 오늘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인데 연도를 구분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자신의 것 이상을 기꺼이 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것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마음입니다.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서 재미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 사용하면 금액이 청구되거나 비용을 더 내는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차츰 적응하고 익숙해 집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쌓아감에 따라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느정도 차면 이름을 붙여 구분짓습니다. 돌(1세), 지학(15세), 약

관(20세), 이립(30세), 불혹(40세), 지천명(50세), 이순(60세), 미수(88세) 등이 그 예입니다. 그 중에 불혹과 이순의 나이가 신기하기도 하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불혹(不惑)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순(耳順) 인생의 경륜이 쌓여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귀가 순하여 진다.] 속담으로는 윗놀이에서 나타나는 ‘도긴개긴’, ‘오십보백보’, ‘그 나물에 그 밥’이 있기도 하는데 서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특별하지 않고 다 비슷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뇌과학, 생물학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호르몬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0개월이 지나면 분비되는 호르몬 변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변하고 다른 것으로 표현합니다. ‘정’이나 ‘고마움’, ‘웬수’, ‘의리’로 말이죠.

새해의 기대와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 무뎠지는 것, 우리의 관심도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어지고 습관화 되어 그 의미가 새롭지 않고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매년 새해가 되면 특별한 의미를 붙여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의미와 희망을 담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힘을 넣는 것은 생각,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우리는 반복되는 삶을 살거나 기대의 새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예수를 세상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루를 귀하게 주어진 삶을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기쁨으로 채우기를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
<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25, 491 / 336

기도 :

성경 : 잠언 17장

제목 :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1-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해석: 물질적인 것 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 관계 안에서 상호간에 영광, 기쁨이 되어야 한다.

적용: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자.

7-16: 권력자에 따른 지혜 말씀

해석: 우리는 권력자 또는 따르는 자의 자리에 있다.

적용: 권력(힘)이 있을 때 더욱 지혜롭게 하자. 배우는 자가 되자.

권력(힘) : 나이, 직책 / 지적 / 대인관계 / 부 / 명예 / 처세술

17-22: 관계에 따른 지혜 말씀

해석: 근심하는 마음보다는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친한 관계(친구, 가족)일수록 지혜로 대해야 한다.

적용: 친하다고 생각할수록 지혜롭게 대하자. 예의를 지키자.

23-28: 판단에 따른 지혜 말씀

해석: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한다. 지금의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적용: 지혜롭게 말을 하자. 한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자.

민용이의 겨울방학

2023년 12월 23일 연극 연습

성탄전야예배 전날, 교육관에서 '세 나무 이야기' 연극 연습을 했다. 나는 배(가 되는) 나무 역할이었다. 그때 옷이 커서 힘들었다. 연습을 끝내고 저녁을 먹었다. 치킨과 피자를 먹었다. 그리고 연습을 더 하다가 집에 갔다.

12월 24일 세 나무 이야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예배를 드리고 연극 '세 나무 이야기'를 연습했다. 점심을 먹고 성탄전야예배를 드렸다. 푸른꿈사랑방 차례가 끝나고, 어린이사랑방 차례였다. 많이 떨렸다. 연극이 끝나고 나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연극을 본 집사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예배를 모두 마치고 집에 갔다. 즐렸다.

2024년 1월 1일 목욕탕♨

오늘 목욕탕에 가서 엄마와 헤어지고 남탕에 갔다. 처음에 씻고 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워서 다른 곳에 갔다. 그리고 찜질방에 가서 식혜도 먹고 구운 달걀도 먹었다. 그리고 얼음방, 산소방, 어린이 놀이방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나가서 햄버거를 사 갔다. 최고의 하루였다.

1월 17일 친구가 놀러온 날

오늘 예준이가 놀러 왔다. 처음에 산에 가서 썰매를 탔다. 그리고 공동식사를 하러 갔다. 짜장밥과 깍두기, 군만두를 먹었다. 그다음 하민이 형, 진용이 형, 예준이랑 눈싸움을 했다. 3, 4학년과 2학년이 대결을 했는데 3, 4학년이 항복했다. 아마도 그만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의자랑 이불로 아지트를 만들고 더 놀았다. 재밌었다!

어린이사랑방 최민용 어린이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히브리서 3 : 1 인도자
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잠언 28 : 13 인도자
261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누가복음 8 : 15 설교자
315 미리내사랑방
“ 열매를 맺는 좋은 땅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96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석용범 박영선 / 봉헌위원 : 장성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을을 다니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맨 처음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싸여 있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길가’는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불신앙과 죄 된 본성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돌짜밭’은 얇은 믿음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가시덤불’은 뿌리를 내리지만, 잡초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뿌리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열매의 유무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면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생활을 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양기모 집사

어린이학교 6학년들의 졸업여행 일지

1월 17일 수요일

드디어 졸업여행 첫날이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공항에서 짐을 부치고 부랴 부랴 아침을 먹었다. 나는 해물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맛소금의 맛이...ㅋㅋ 암튼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출국 검색대에 갔다. 나는 가지고 있던 철이 없었는데 검색대에서 걸려서 조금 황당하긴 했다. 출국심사까지 끝내고 면세점을 구경하다가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비행기가 너무 고급지고 한국 거보다 너무 멋있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신났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내식이 왔다. 그런데 의외로 좀 별로였다.ㅎㅎ 그래도 나름대로 노래도 듣고 카메라로 실시간 비행 상황을 볼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좋았다. 드디어 홍콩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로 갈아탄 후 또 다시 영화도 보고, 기내식과 후식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먹다가 방콕에 도착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저녁으로 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는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엄마, 아빠, 소망이 보고 싶엉~ㅠㅠ

주님, 내일 하루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해주세요.

/ 강현우

1월 18일 목요일

... 태국 전철인 BTS를 타고 로빈슨백화점으로 가서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고 가이드 분을 만나서 왕궁으로 향했다. 가이드는 여자 분이셨고 '짚'이라는 이름의 태국인이셨다. 그리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 하였다. 태국의 왕궁과 국보 1호인 에메랄드 불상과 그 역사에 관해서 한국말로 잘 설명해주셨다. 미리 공부해 간 게 도움이 되어서 뿌듯했다. 우리는 새벽사원에 가서도 가이드 분과 같이 가서 설명도 들

배움과 가르침

었다. 한국에는 없는 건물 형식과 신기한 조각상들이 많아 너무 좋고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오늘은 짜오프라야강에서 배를 타고 다녔다. 왕궁, 황금, 새벽사원을 다보고 우리는 아시아티크로 향했다. 아시아티크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가는 게 정말 시원하고 좋았다.

... 오늘은 내가 안내를 해서 조금 떨렸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남은 일정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

/ 최시현

1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에 조식을 먹고 씻고 로비로 모였다. 사실 오늘 내가 가이드를 하는 날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내가 너무 준비를 못해와서 후회도 됐다. 그렇게 생각에 잠겼을 때 우리는 벤을 타고 사파리월드로 갔다. 은근 차가 커서 좋았고 에어컨이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차로 한 시간 좀 넘게 가서 사파리월드에서 도착했다. 엄청 크고 사람이 많아서 신기했다. 처음에 들어가서 스파이 쇼를 봤는데 불도 나고 제트 스키로 물도 오게 해줘서 신났지만 태국어로 말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재미가 조금 떨어졌었다. 쇼를 보고 애니멀 카페에 가서 밥을 먹었다. 나는 호랑이 모양을 본뜬 연어볶음밥을 먹었는데 맛있었고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후식으로 얼룩말 무늬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밥을 먹고 돌고래쇼를 봤는데 돌고래들이 많이 불쌍해서 볼 때 좀 미안했다. 쇼도 다 보고 호랑이를 안고 사진 찍는 걸 했는데 너무 행복했다. 기린에게 음식 주기 체험을 했는데 기린 혀가 신기하게 생겼다. 그리고 3시부터는 다시 차를 타고 동물들을 봤는데 신기하고, 밖에서 만져보고 싶어졌다.

... 숙소로 돌아올 때는 '툭툭'이라는 오토바이에 4명씩 타고 숙소로 왔는데 빨라서 스릴 만점이었다. 다음에 또 타고 싶은 느낌이었다...

/ 권민상

강력한 총 알 기도 아시는지요?

갑진년이 시작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올해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주보글이라 무엇을 쓸까 생각하다가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일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보신 분 있으실까요? 무림방 어른들께 찾아가서 손을 꼭 잡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인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걸 전 총 알 기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은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시는 동안의 모든 삶의 과정은 다르지만 지금까지의 삶은 존경받으시기에 충분하기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란 마음을 담아 총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무림리로 들어온 것이 1997년이고 바로 갑상선수술 직후입니다. 그 후의 몇 년의 제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까만 기미가 온 얼굴을 덮고 있었고 이곳을 방문한 분들이 놀라서 울고 간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전 덕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우울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 사모님의 강제적인 권유로 피부과와 상담을 했는데 박피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 놀라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송명희 시인을 만났고 불편한 온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제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방황하고 있던 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자유 하니 얼굴은 물론 찌한 간증거리도 주셨습니다. 요즘은 어디가나 듣는 말이 피부 관리하세요? 그럼 전 전담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물론 속으로만 한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니까요.

올해도 전 사랑하는 분들에게 계속 강력한 총 알 기도를 쓸 겁니다.
저랑 함께 하시겠어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월영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528장, 218장
성 경 : 마태복음 5장 13~16절
말 씬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예멘 반군의 활동과 미국의 홍해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란도 이스라엘 첩보시설을 파괴하는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을 비롯한 세계에서 평화가 다시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새해를 시작하는 신앙공동체를 위해>
1) 새해 계획과 진행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도록
2)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육체와 영적으로 굳세고 강건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졸업여행을 떠나는 어린이학교를 위해
2) 계속되는 심방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학교들이 방학이어서 고요할 것 같지만 일상은 계속되고,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이어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육관 2층 멧쟁이숙소의 전기문제로 한 주간 동안 공사를 했고, 봄 학기 식사를 위해 보관해 두었던 식기를 모두 꺼내서 닦는 일을 매 점심 설거지 때마다 공동 식구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어린이학교가 수요일에 졸업여행을 떠나서 기도자리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꾸러기학교 동문회로 공동체가 오래간만에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식구들이 있어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 장영미 전도사 >